(어릴적 사진)안녕히세요. 어릴 적 백양사의 동자승이 될 뻔했던 자연환경해설사 장석윤입니다. 이렇게 제가 20년 넘게 드나들던 백양사에는 많은 전각과 유물, 문화재 등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탑입니다.

보통 탑은 절의 대웅전 앞 마당 중심에 있는데 백양사는 마당이 텅 비어 있어 절 좀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시는데요 백양사 탑은 바로 대웅전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만 알고 보면 대웅전 보다 조금 더 놓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탑으로 석가모니 자체를 의미해 불상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대웅전 뒤에 건립된 것입니다.
(사리 사진) 백양사 탑의 진신사리는 일본의 홍법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것을 백용성 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1924년 만암 대종사가 백양사에 이를 봉안하여 탑을 대웅전 보다 더 높은 곳에 탑이 세우게 됩니다.
(1층 탑신 사진) 탑은 탑신의 1층 속을 비워 그 속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넣는데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탑이 엄청 많죠?(참여유도) 석가모니의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모든 탑에 다 모실 수는 없었겠죠.
(사리함과 불경사진) 그래서 진신사리가 없을 땐 불상이나 불경을 넣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1966년 석가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양사의 탑은 그 형태도 특이한데 기단부의 상대중석과 탑신의 석재 재질도 달라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탑입니다. 또 상대중석이 원통형으로 지금은 그저 특이하게 생긴 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처럼 이형탑으로써 훌륭한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여러분은 탑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참여유도) 혹시 탑의 층을 세어보지 않나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백양사의 탑은 몇 층일까요?(참여유도) 네 많은 분들이 아시 듯 바로 8층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탑을 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의 구조 사진) 먼저 탑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탑은 크게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탑은 부처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집처럼 짓는데 탑을 집과 비교하면 똑같이 기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듯 몸돌인 올리고 사각의 끝에는 우주라고 해서 돌로 기둥모양을 새기기도 합니다. 몸돌 위에는 지붕돌을 올리는데 옥개석에는 옥개석 받침이라 불리는 층층으로 된 처마가 있고 건물의 그것처럼 그 끝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완벽한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참여유도) 우리가 층을 세는 것은 바로 이 몸돌과 지붕돌의 숫자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지붕돌의 유무로 탑신부와 기단부를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를 상륜부라고 하며 중심에 찰주라는 긴 기둥을 두고 많은 장식물이 있지만 현재는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느 사찰 어느 탑을 보시더라도 몇 층 탑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참여유도)

그럼 다시 한번 백양사 탑을 세보세요.(참여유도) 몸돌과 지붕돌을 세어보니 8층이 맞지요. 우리나라 다른 사찰의 탑은 대부분 3,5,7,9 같은 홀수층 탑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 하여 음의 기운을 가진 땅에 대해 올라가는 층의 수는 양의 수인 홀수로, 면의 수는 4각, 6각, 8각 등 음의 수인 짝수로 지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셨습니다. 예외적으로 완전체를 상징하는 짝수인 10층탑도 있지만 3층과 7층의 의미가 합쳐진 탑입니다. 백양사의 탑은 8층인데 그 이유는 바로 고통을 잊고 깨달음을 얻는 '8개의 바른 길'을 뜻하는 팔정도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팔정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팔정도(불교 수행에서의 8가지 올바른 길)

- 정견(正見):올바로 보는 것, 바른 견해
- 정사유(正思惟):올바로 생각하는 것, 바른 생각
- 정어(正語):올바로 말하는 것, 바른 언어
- 정업(正業):올바로 행동하는 것, 바른 행동
- 정명(正命):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바른 생활
- 정정진(正精進):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바른 노력
- 정념(正念):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바른 새김
- 정정(正定):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바른 정신통일

지금까지 팔정도가 무엇인지 보았는데요. 백양사의 탑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였습니다. 고불총림인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국토를 수복하고 옛불교를 회복하자는 고불운동을 펼치며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 절 이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수행을 돋우기 위해 팔정도를 기린게 아니였을까요? 팔층탑을 만난 오늘을 계기로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가끔 팔정도를 생각하며 생활하신다면 우리 백암사무소와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